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영향요인

¹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²전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유성희¹ · 김형주² · 신수진² · 최지현² · 홍예슬²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ith Their Major

Yoo, Sung-Hee¹ · Kim, Hyeong-Ju² · Shin, Su-Jin²
Choi, Ji-Hyeon² · Hong, Ye-Seul²

¹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²Nursing student,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satisfied nursing students in 4-year colleges were with their major and to characterize related factors.

Method: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perform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ith their major. We enrolled 165 students from 3 distinct 4-year university. Through a questionnaire, we evaluated potential variable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the major, including physical, socioeconomic, psychological, and spiritual variables, as well as academic factors. Multiple linear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Results: The mean age of the students was 22.6 ± 1.5 years and 149 (90.3%) were female. The mean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was 3.75 ± 0.66 out of 5.00. Satisfaction was related to the motivation for admission ($F=2.45$, $p=.089$), general stress ($r=-.21$, $p=.006$), resilience ($r=.14$, $p=.075$), spirituality ($r=.38$, $p<.001$), and clinical practice-related stress ($r=-.22$, $p=.005$).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only individual spirituality showed an independe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the major ($\beta = .22$, $R^2=.105$, $p=.022$).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spirituality w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Therefore, various programs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spirituality in nursing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

교신저자: 유성희,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전화: 062-530-4941, 팩스: 062-220-4544, E-mail: shyoo@j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대학생들은 가치관 정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생활, 학점, 새로운 대인관계 등 여러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4세에 해당하는 전체 응답자 중 65.1%에서 일반적인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62.6%가 학교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Statistics Korea, 2015).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대학생에 비해 과도한 학업량과 이론수업과 병행해야 하는 임상실습교육에서 겪는 전강문제, 실습현장에서 느끼는 간호대상자로부터의 거부감과 이에 따른 불안, 긴장감과 같은 특수한 영역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 (Whang, 2006) 학교 생활 중 전공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인 학과만족도로,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할 때 전공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Ha, 1999).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습몰입도가 높아짐은 물론,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가능하게 하며(Moon & Lee, 2010), 진로정체감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내었다(Jung, Jeong, & Yoo, 2014).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이 높고 직업적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였다(Ko et al., 2011). 이런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경우 취업 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고(Kim & Chung, 2008), 이직의도(Nam & Kwon, 2012) 혹은 이직충동이 낮기(Yoon, Choi, Lee, Lee, & Park, 2013) 때문에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고취시키는 것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물론 향후 진로 탐색 및 직업 유지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생활만족, 자아존중감, 직업존중감이 있었고(Shin, 2013),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Kim & Lee, 2014).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거나(Park & Oh, 2014), 혹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Whang, 2006), 낮은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를 순차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Jeong & Shin, 2006)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의 정서적 특성이거나 학문적 특성들로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부분적으로 고려되었었다. 연구대상자 또한 아직 전공에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임상 실습 등의 경험이 없는 1, 2학년이 포함되었고(Lim, Kim, & Choi, 2015; Song & Cho, 2015), 3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Jung et al., 2014; Lee, 2011; Son, Kim, & Jun, 2011)로 현 간호 교육 체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재평가하고, 이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학생 자체의 개인적 특성을 일반적, 사회경제적, 정신적, 영적 측면으로

나눠 고려하고, 간호학 학문의 특성 중 주요 부분인 임상실습 스트레스 여부 및 입학 동기를 고려하여 각각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요인을 확인함은 물론, 특히 정신적, 영적 요인을 자아탄력성이나 영성 등의 긍정적 개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생들의 긍정 에너지를 향상시키려는 학교 자체의 전략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연구의 목적

- 1)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전공 관련 특성 및 전공 만족도를 확인한다.
- 2)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전공 관련 특성과 전공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4년제 간호대학생으로 구체적인 포함기준 및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다.

〈포함기준〉

- 1)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취업에 대한 부담이 낮아 순수 전공만족도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자

- 2)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여 설문에 응할 수 있는 자
- 3) 본 연구에 동의한 자

〈제외기준〉

1) 6개월 이내 복학한 자 (자료 수집 해당 학기 복학 자)

2) 유학중인 자 (외국인)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산정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13개의 변수를 고려하여 유의수준 5%(양측검정),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0.90 시 총 162 명이 요구되었다. 이에 탈락률 5%를 고려하여 총 170명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총 166명 이었고, 이 중 부적절한 설문으로 판단된 1부를 제외한 총 165명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사회경제적, 정신적 및 영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개인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종교, 거주 형태 및 질병 여부를 포함하였고,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는 현재 아르바이트 수행 유무 및 동아리 활동 여부를 조사하였다. 정신적 특성으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 정도를, 영적 특성으로는 영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으로 대학의 종류, 간호학과 지원 동기, 직전 학기 성적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중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성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전공 만족도 (Satisfaction of major)

본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는 Illinois 대학의 Brakamp 등(1979)이 전공학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학과평가 조사지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Ha (1999)가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학교에 대한 인식 부분을 추가하여 학과만족도 도구로 개발한 31문항 중, Lee (2004)가 학교만족이나 졸업 후 진로 등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 순수 전공만족과 관련하여 사용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영역은 전공에 대한 '일반 만족' 6문항, 전공 학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인식 만족' 6문항, 전공 교과내용에 대한 '교과 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4)의 연구에서 전체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90 이었고, 영역별로는 일반 만족 .89, 인식 만족 .84, 교과 만족 .78, 관계 만족 .76으로 모두 .75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 이었고, 영역별로는 일반 만족 .93, 인식 만족 .92, 교과 만족 .82, 관계 만족 .84 이었다.

2) 대학생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Yoo, Chang, Choi와 Park (2008)이 개발한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총 59

문항 중,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 측정 영역 20문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관련된 39문항으로 평가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영역은 개인 간, 개인 내, 학업, 환경 스트레스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큰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대학생활 스트레스 39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 이었다.

3)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를 Yoo와 Shim (2002)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으로는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영역, 총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76이었고, Yoo와 Shim(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7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 이었다.

4) 영성 (spirituality)

Paloutzian과 Ellison(1982)에 의하여 개발된 영적안녕(spiritual wellbeing) 척도를 Choi (1990)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주관적인 영적안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 영적안녕'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적안녕’ 상태를 측정하는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각 10 문항씩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와는 관계 없이 존재론적 삶의 의미에 중점을 둔 실존적 영적안녕에 관한 10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으로 Likert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 (1990)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 이었다.

5) 임상실습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위의 Yoo 등(2008)이 개발한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하위 영역으로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 20문항을 사용하였다(Yoo, Chang, Choi, & Park, 2008).

본 도구의 하위 영역은 실습지도자, 실습대상자, 실습생, 임상환경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큰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 20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 이었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C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IRB No. 1040198-151105-HR-057-02).

자료 수집은 G 광역시 내 국립대 1개 대학, 사립대 3개 대학 등 총 4개 대학으로부터 편의 표집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편의 추출한 4개 간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 목적

및 설문 협조 관련 메일을 보낸 후 수락 하에 자료 수집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협조 허락 메일이 2곳 이었고, 이에 2차, 3차로 각각 2학 교에 협조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1곳에서만 허락 메일을 받아 총 3곳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대상자 표집을 위해 본 연구자 중 한 명이 각 학교의 학생 대표와 사전 가능한 시간 대를 합의한 후 방문하였고, 3학년 간호대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한 후 본 연구 대상자에 부합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간호대학생 60명을 선착순 모집하였다.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하겠다고 손을 들어 표한 학생에게만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읽고 서명하게 한 후 설문을 수행하였다. 모든 설문은 무기명으로 수행하였고, 성별 및 연령을 제외한 어떤 인적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다. 설문 작성 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이 완성된 경우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수거하였고,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4. 자료 분석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일반적, 사회경제적, 정신적 및 영적 특성), 전공 관련 특성 및 전공만족도는 질적 변수인 경우 빈도와 퍼센트로, 양적 변수인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변수의 속성에 따라 독립 t 검정, 일원분산분석 및 피어슨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전공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 분

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고, 단변량 분석에서 $p<.10$ 로 유의하게 의미 있는 변수만을 모델에 삽입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 21.0을 사용하였고, 양측 검정 $p<.05$ 만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사회경제적, 정신적 및 영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165명으로

각 학교별 52~59명 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6(± 1.5)세 이었고, 여성이 149명(90.3%) 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전체의 101명(61.2%) 이었고, 자취생활이나 기숙사 생활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51명(30.9%) 이었다. 현재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경우는 32명(19.4%) 이었고, 동아리 활동은 102명(61.8%)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활 관련 일반적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87(± 0.72)점이었고, 자아탄력성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81(± 0.53)점 이었다. 실존적 영성은 6점 만점에 평균 4.07(± 0.76)점 이었다(Table 1).

〈Table 1〉 Individual (General, Socioeconomic, Psychological, and Spiritu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N=165)

Variables	n(%)	Mean \pm SD	Range
Age(years)		22.6 \pm 1.5	
≤22	114(69.1)		
23 ~ 25	41(24.8)		
≥26	10(6.1)		
Sex			
Male	16(9.7)		
Female	149(90.3)		
Illness			
Yes (autoimmune, others)	7(4.2)		
No	158(95.8)		
Religion			
Christian	36(21.8)		
Buddhist	7(4.2)		
Catholic	21(12.7)		
None	101(61.2)		
Living with family			
with family	114(69.1)		
without family (dormitory, alone)	51(30.9)		
Part-time job			
Yes	32(19.4)		
No	133(80.6)		
Participation in a club			
Yes	63(38.2)		
No	102(61.8)		
General stress		2.87 \pm 0.72	1~5
Resilience		2.81 \pm 0.53	1~4
Spirituality		4.07 \pm 0.76	1~6

2. 간호대학생의 전공 관련 특성 및 전공만족도

간호학과 지원 동기로는 취업이 유리해서 지원한 경우가 64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의 권유나 성적 등 외적 권유에 맞춰 지원한 경우가 51명(30.9%), 자신의 적성이나 원해서 지원한 경우는 48명(29.1%) 이었다. 전 학년 평균 평점은 3.0~4.0사이에 약 75%가 분포해 있었고, 약 7%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4(± 0.76)점 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전반적인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5(± 0.66)점 이었다(Table 2). 전공만족도의 하부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내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내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내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등 전공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및 가치 등을 포함한 일반적 만족은 3.60(± 0.74)점 이었고, “나는 내 전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전공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등과 같이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은 4.09(± 0.70)점 이었다. “전공 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등과 같은 전공 학문 자체 및 교과 운영 등에 대한 교과만족은 3.20(± 0.85)점 이었고, “전공 영역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나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 등과 같은 교수-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만족은 3.28(± 0.87)점 이었다(Table 2).

〈Table 2〉 Major-related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ith the Major (N=165)

		n(%)	Mean \pm SD	Range
Type of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59(35.8)		
	Private university 1	52(31.5)		
	Private university 2	54(32.7)		
Motivation for admission	Wanted (vision or aptitude)	48(29.1)		
	Get a job	64(38.8)		
	External condition (by parents or grade)	53(32.1)		
Grade from last semester	<3.0	17(10.3)		
	≥ 3.0 and <3.5	61(37.0)		
	≥ 3.5 and <4.0	63(38.2)		
	≥ 4.0	12(7.3)		
	unrecorded	12(7.3)		
Clinical practice-related stress			2.64 \pm 0.76	1~5
Satisfaction with the major			3.75 \pm 0.66	1~5
General satisfaction			3.60 \pm 0.74	
Social cognition satisfaction			4.09 \pm 0.70	
Course satisfaction			3.20 \pm 0.85	
Relationship satisfaction			3.28 \pm 0.87	

각각의 하부 영역 만족도는 전체 전공만족도에 $r=.726\sim.846$ 정도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교과 자체에 대한 만족과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은 $r=.667$ ($p<.001$)으로 다른 하부 영역간 만족도에 비해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영향 요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전공 관련 특성 중

전공만족도와의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입학 동기가 ‘자신이 원해서’ 오는 경우(3.92 ± 0.77 점)가 ‘취업이 유리해서’(3.70 ± 0.58 점)나 ‘외적 권유’(3.64 ± 0.62 점)에 의해 오는 경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p=.089$). 그 외 성별이나 연령, 종교, 가족과의 동거 여부, 대학 유형 및 전 학기 학점 등은 전공 만족도와 관련이 없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ach Sub-component of Major Satisfaction ($N=165$)

	General satisfaction	Social cognition satisfaction	Course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major
	r (p value)				
General satisfaction	1				
Social cognition satisfaction	.523 (<.001)	1			
Course satisfaction	.570 (<.001)	.381 (<.001)	1		
Relationship satisfaction	.436 (<.001)	.413 (<.001)	.667 (<.001)	1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major	.846 (<.001)	.783 (<.001)	.764 (<.001)	.726 (<.001)	1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Major Satisfaction by Univariate Analysis ($N=165$)

	n	Major Satisfaction		
		Mean±SD	r or t or F	p value
Age			-0.07	.375
Sex	Male	16	3.56 ± 0.89	-1.17
	Female	149	3.77 ± 0.63	.244
Illness	Yes	7	3.43 ± 0.53	1.30
	No	158	3.76 ± 0.66	.195
Religion	Christian	36	3.89 ± 0.52	1.32
	Buddhist	7	3.43 ± 0.53	
	Catholic	21	3.81 ± 0.75	
	None	101	3.70 ± 0.69	
Living with family	With family	114	3.75 ± 0.66	-0.01
	Without family	51	3.75 ± 0.66	.996
Part-time job	Yes	32	3.69 ± 0.47	0.55
	No	133	3.76 ± 0.70	.581
Participation in a club	Yes	63	3.78 ± 0.66	-0.49
	No	102	3.73 ± 0.66	.622
Type of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59	3.66 ± 0.54	1.23
	Private University	106	3.79 ± 0.71	.221

		Major Satisfaction			
		n	Mean±SD	r or t or F	
				p value	
Motivation for admission	Wanted(vision, aptitude)	48	3.92 ± 0.77	2.45	.089
	Job or employment	64	3.70 ± 0.58		
	External condition	53	3.64 ± 0.62		
Grades (n=153)	<3.0	17	3.71 ± 0.69	0.60	.615
	≥3.0 and <3.5	61	3.85 ± 0.60		
	≥3.5 and <4.0	63	3.70 ± 0.73		
	≥4.0	12	3.75 ± 0.62		
General stress				-0.21	.006
Resilience				0.14	.075
Spirituality				0.38	<.001
Clinical Practice-related Stress				-0.22	.005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and p 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Pearson's correlation, the independent t-test, or ANOVA, where appropriate

〈Table 5〉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on Satisfaction with the major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N=165)

Variable	β	t	p value
Motivation for admission - wanted	.13	1.48	.142
Motivation for admission - job or employment	.04	0.42	.673
General stress	-.06	-0.55	.583
Clinical Practice-related stress	-.04	-0.41	.683
Resilience	.03	0.40	.692
Spirituality	.22	2.32	.022
F=3.046, R2 = .105,			p=.008

대학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스트레스($r=-.21$, $p=.006$) 및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r=-.22$, $p=.005$)가 높은 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았고, 실존적 영성($r=.38$, $p<.001$)이 높을 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Table 4].

독립적인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p<.10$ 인 변수를 모두 넣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존재론적 의미의 영성 ($\beta=.22$, $p=.022$) 만이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에 대한 설명력은 10.5% 이었다(Table 5).

V. 논 의

본 연구는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이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공만족도 영향요인을 간호대학생 개인적 소양으로 일반적, 사회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또한 학문적 특성으로 입학 동기 및 전 학기 학점,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 여러 잠재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75점이었고,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간호학과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82점(Park & Oh, 2014)이었던 것 보다 다소 낮았으나, 3, 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년제 학생의 3.49점을 보인 것(Kim & Lee, 201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3년제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4년제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Kim & Lee, 2014; Moon & Lee, 2010), 학년의 경우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은 경우(Jung et al., 2014)와 저학년일 때 높은 경우(Shin, 2013) 등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전공 만족도의 하부 영역으로는 사회적인 ‘인식만족’ 영역만 평균 이상이면서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Jung et al., 2014; Kim & Lee, 2014; Lee, 2011; Moon & Lee, 2010). 이는 사회의 다양화 및 건강의 개념 변화 등으로 간호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고도의 대학생 취업난에 있는 사회 현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업이 유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4점 이상의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긍정적인 간호 혹은 간호학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와 인식이 전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상관성은 중간 정도이나 학문 자체에 대한 만족이나 전공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 자체의 내용, 학업량, 교수의 준비도 등 학문 자체 및 교과과정에 대한 교과만족은 3.20점으로 가장 낮았고,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또한 3.28점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 또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였다(Jung et al., 2014; Kim & Lee, 2014; Lee, 2011; Moon & Lee, 2010). 물리치료학 전공 학생의 경우 일반만족, 교과만족

및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이 3.32~3.48점 사이에 분포하여 비슷하게 유지되었다(Kim & Lee, 2015). 반면 일반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대 및 지방 국립대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서울대의 경우 일반만족 및 학과인식만족이 3.6점대인 것에 반해 교과만족 및 관계만족이 각각 3점대 초반 혹은 2점대로 낮았고, 지방 국립대의 경우 모든 하위 영역이 3.05~3.22점 사이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Kim & Ha, 2000) 전반적인 대학생들이 교과 자체 및 관계 만족이 저하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학생들이 우수할수록 이런 격차는 더 큰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과만족 및 관계만족이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관련성이 높았는데 향후 이들의 전후 관계 규명 및 관계만족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교과만족 및 전반적인 전공만족도의 향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노력과 연구가 지속되어야겠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존재론적 삶의 의미에 중점을 둔 실존적 영적 안녕 개념인 영성(spirituality) 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던 대학의 유형이나 가족과의 동거 여부, 종교 혹은 동아리 활동과 같은 사회 생활, 학점 등은 전혀 관련성이 없었다. 간호학과 지원 당시 부모의 권유나 성적에 맞춰 진학하는 등 외부적 권유에 의해 입학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적성이나 비전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여 지원한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기존 연구에서도 유의하게 높았는데(Jeong & Shin, 2006; Jung et al., 2014; Lee, 2011; Moon & Lee, 2010), 본 연구에서는 높은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다변량 분석에서는 전혀 유의성을 주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3학년 학생으로 대학 초년생의 전공만족도에는 영향을 줄지 모르나 이미 다양한 학문에 외적 경험과 생각 등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주지 못했을 수 있고, 혹은 원해서 입학하였을지라도 학업 자체의 막중함이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수 있다. 실제 단변량 분석에서 일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전공만족도에 부적 상관성을 보였고, 이는 기존 연구(Park & Oh, 2014)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처럼 이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아 탄력성(Kim & Lee, 2014)이나 자아 존중감(Jeong & Shin, 2006; Shin, 2013)이 유의하게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연구에서 고려되는 변수들과 연구 대상자의 특성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한편으론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정서적 혹은 정신적 특성과 함께 영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것과 학문적 특성을 함께 보정하는 등 기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분석한 것을 종합해보고자 시행된 것이어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을 수 있다.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이란 인간을 신체적, 정서적, 영적 측면의 총체적(holistic)으로 볼 때, 인간의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영성(spirituality)이란 절대적인 존재, 즉 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영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태생과 죽음, 그 가운데 삶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소유가 아닌 존재론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탐색하는 영적인 성찰 속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Choi와 Kim(1998)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적 안녕

에 관한 연구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간의 영적 안녕 점수에 차이가 전혀 없었고, 이런 영적 안녕이 희망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간호교육을 통해 이를 향상시키는 것이 절망을 중재하고 정신적, 영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향후 간호대학생에서의 영적 안녕 상태 및 이의 영향 요인, 더 나아가 이를 향상시키려는 중재 연구 등을 통해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여러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함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간호 학문에 대한 전공만족도를 평가하고자 3학년 학생으로만 국한하여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체 전공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존 3년제의 교육과정만 고려되거나 부분적인 영향요인만을 포함한 것을 넘어 잠재적 영향 요인을 모두 고려하였다 는 것에 그 의의가 있고, 현 교육과정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전체 학년의 전공만족도를 학년별로 비교하거나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학년간의 차이 혹은 흐름을 파악해 보고, 학년 별 영향요인을 별도 분석해봄으로서 학년 별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많은 잠재 요인들을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델의 설명력이 약 10.5%로 낮았다. 실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들 외에도 개인의 경제적, 가정적 상황 등 수정 불가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

고, 교과 수업의 질이나 교수-학생간의 관계 등 또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나 이런 항목들이 이미 전공만족도의 도구의 하위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상관성 분석은 할 수 있었으나 다양량 분석을 통해 독립적인 요인인지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순수 학문의 만족도 혹은 교과 만족도 등의 전공만족도를 별도 분석하여 교수-학생간의 관계 등이 독립적 요인으로 영향하는지를 규명하고 설명력 등의 향상 여부를 평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정도 및 영성이라는 독립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인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뚜렷한 정체성이 간호 학문의 정체성으로도 이어져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학의 학문적 지식뿐 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성, 간호정체성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물론, 학교 교육과정 상 ‘자아 찾기’등 간호대학생의 영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영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도입이 실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지는 물론 더 나아가 간호전문 직관이 정립된 간호사가 되는데 기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Choi, S. S. (1990).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ness,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urban adults*. Yonsei University.
- Choi, S. S., & Kim, J. S. (1998).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4(2), 331-342.
- Ha, H. S. (1999). *The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Jeong, M. H., & Shin, M. A.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 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12(6), 170-177.
- Jung, J. S., Jeong, M. J., & Yoo, I. Y.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 27-36.
- Kim, D. J., & Lee, J. S.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2), 244-254.
- Kim, K. H., & Ha, H. S. (2000). Indicators for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Kim, W. K., & Chung, K. H. (2008). The

-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in*, 14(3), 287-296.
- Kim, Y. L., & Lee, S. M. (2015).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t university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physical therapy students. *The Society of Physical Therapy Science*, 27(2), 405-409.
- Ko, J. E., Kim, M. H., Kim, E. J., Kim, H. J., Eom, J. E., Lee, H. A., . . . Jang, D. E. (2011).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of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Ewha women's nursing science*, 45, 29-44.
- Lee, D. J. (2004).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 Lee, J. Y. (2011). Correlations between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12(3,4), 213-224.
- Lim, S. Y., Kim, S. Y., & Choi, H. M. (2015). The Relationships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2), 45-51.
- Moon, I. O., & Lee, G. W.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16(1), 83-91.
- Nam, M. H., & Kwon, Y. C.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Better Life Index,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s to Leav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417-427.
- Park, H. J., & Oh, J. W. (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17-426.
- Shin, M. A. (2013).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1), 1024-1035.
- Son, B. H., Kim, Y. M., & Jun, I. G. (2011).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3), 240-249.
- Song, Y. J., & Cho, G. P. (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355-378.
- Statistics Korea. (2015). *2015 Statistics on the Youth: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Wh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2), 45-51.

-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Yoo, J. S., Chang, S. J., Choi, E. K., & Park, J. W. (2008).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6), 410-419.
- Yoo, S. K., & Shim, H. 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89-206.
- Yoon, H. K., Choi, J. H., Lee, E. Y., Lee, H. Y., & Park, M. J. (2013).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19(5), 658-667.